

# 천혜의 자연환경 속 이색 동식물 어우러진 ‘南美의 보물’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산악지대 등 자원 풍부  
관광산업 성장률 해마다 10% 넘어  
슈퍼볼 광고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

에콰도르의 자연경관은 아름다운 해변, 정글이 울창한 산악지대 등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다. 넓지 않은 국가면적 안에 각기 다른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으며, 신비로운 산악지형·아름다운 해변과 섬들·화산과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어우러져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자태를 뽐낸다.

이 모든 경관이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될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남미의 보물 에콰도르만의 이러한 매력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식부터 활기차고 현대적인 이색체험까지 다양한 매력을 짧은 시간에 두루 경험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여행객의 관심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에콰도르의 각 지방은 그 지역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안데스 산맥이 위치한 안데스 지방은 산악지대와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활



에콰도르의 보물로 불리는 갈라파고스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거북을 보고 있다.

〈출처: www.ecuadortimes.net〉

화산과 휴화산으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서쪽의 태평양 연안 지역은 방대한 망그로브림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또 이 지방에는 아프리카계 에콰도르인이 여존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고, 거주하고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갈라파고스 지방은 ‘에콰도르 내에서도

보물’이라 불리는 곳으로 조그만 섬으로 이뤄진 이 지역은 펭귄·이구아나·바다사자·바다거북의 휴식처라 할 만큼 특별한 동식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위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전 세계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생태촬영을 위해 꼭

한번 찾는다. 지역 역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다. 이런 이유로 관광산업은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석유수출을 제외하면 에콰도르의 가장 큰 산업인 셈이다.

에콰도르 관광산업은 최근 들어 매년 1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에콰도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55만7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남미 주변국에 비해 방문 관광객 수는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관광객 유치정책과 홍보 지원으로 앞으로 관광객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4년 기준 33만7천500명으로, 총 고용인구 중 4.8%에 해당한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지역은 ‘키토’와 ‘쿠엥가’가 위치한 산악지방이다. 그리고 항구도시 ‘과야킬’ ‘마나비’ 주와 ‘갈라파고스섬’이 그 뒤를 따른다. 에콰도르는 최근 들어 관광부문에 세계적 인상을 다수 수상했다. ‘세계 친환경 관광대상’을 2013년, 2014년 연속 수상한 것을 비롯해 ‘2014년 남아메리카 선두 친환경 관광지상’과 ‘2014년 남아메리카 관광이사회

상’ ‘남아메리카 최고 철도상’ 등을 받았다. 또 뉴욕타임스 선정 ‘2014년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파라다이스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에콰도르 정부는 관광업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관광부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에콰도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미국의 최대 스포츠 경기인 슈퍼볼 경기 하프타임 때 30초 동안 에콰도르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자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슈퍼볼 상업광고를 실행한 국가는 에콰도르가 처음이다. 에콰도르 관광부에 의하면 슈퍼볼 광고 이후 에콰도르를 방문한 미국 관광객 수는 전월 대비 14%나 증가했으며 남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많은 미국인이 에콰도르를 방문했다고 한다.



김피열라 에스테파<경북PRIDE상품 에콰도르 해외시장 조사원·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세미나대학원 재학>